

“영원한 별·하늘의 바람이 된 아이들 잊지 않길”

세월호 11주기 목포기억식

참사 피해 유족 등 600여명 참석
이태원·제주항공 유족도 슬픔 나눠
기억나무 부스엔 추모글로 채워져

“영원한 별, 하늘에 빛나는 바람이 된 아이들, 잊지 않습니다.”

어느덧 11년이라는 시간이 지났지만, 그날의 아픔과 상처는 아직도 아물지 못했다. 바다에 남겨진 기억과 육지에 남은 이들의 눈물은 여전히 그 자리에 멈춰 있었고, 진실을 향한 갈망 역시 조금도 열리지 않았다.

4·16 세월호참사 11주기를 맞은 16일 오후 목포 달동 목포신항에 거처된 세월호 선체 앞에서 ‘세월호잊지않기목포지역 공동실천회’가 주관하는 11주기 목포 기억식이 열렸다.

행사에는 0416단원고가족협의회와 1029이태원참사가족협의회, 1229제주항공여객기참사유가족 등 참사 피해 유족들과 관계자, 시민 등 600여명이 참석했다.



0416단원고유가족협의회가 16일 오후 목포 달동 목포신항에서 열린 세월호 11주기 목포기억식에서 헌화식을 진행하고 있다.

기억식이 시작하기 전부터 목포신항에는 추모객들의 발걸음이 계속 이어졌다. 세월호 선체로 향하는 입구 펜스에는 추모객들이 메달아 놓은 노란리본으로 가득했다. 자리에 착석한 유족들의 애달프고 비통한 마음은 11년 전 그날과 다르지 않았다. 추모객들은 행사 중간 유족들에게 ‘연대’와 ‘지지’의 박수를 보냈다. 기억사가 시작되자 몇몇 이들은 눈물을 보이기

시작했다.

고 이호진 엄마 김성아씨는 기억사를 통해 아들에게 편지를 전했다.

김씨는 “아들이 태어나 처음으로 말이 트이고 엄마라고 불렀을 때 벅차고 감격스러웠다”며 “우리 가족 곁을 떠난 지 11년이 지나 또 그날이 됐지만 어제도 사진 속 아들이 있던 장소로 짐작되는 곳을 둘러보고 왔다”고 말했다.

용인 일가족 살해 50대, 광주서 ‘사기혐의’ 피소

부모 포함 5명 살해, 도주 후 검거 수억대 계약금미반환 60여건 피소

경기 용인에서 부모와 아내 등 일가족 5명을 살해한 혐의를 받는 50대 남성이 광주에서 민간임대주택 사업을 벌이던 중 수억원대 사기 혐의로 고소장이 접수돼 수사를 받고 있던 것으로 확인됐다.

광주 동부경찰은 지난 15일 오전 11시 10분께 동구의 한 빌라에서 살인혐의를 받는 50대 남성 A씨를 검거해 용인서부경찰로 신병을 인계했다고 16일 밝혔다.

A씨는 지난 15일 오전 경기 용인 수지구 자택에서 80대 부모와 50대 아내, 각각 20대와 10대인 2명의 딸 등 가족 5명에게 수면제를 먹인 뒤 차레로 목을 졸라 살해한 혐의를 받고 있다. 범행 직후 A씨는 승용차를 몰고 광주에 있는 또 다른 거주지로 도주했다. 유족의 신고를 받은 경찰은 같은 날 오전 9시55분께 현장에 출

동해 타살 정황을 확인, A씨를 용의자로 특정하고 동부경찰에 공조를 요청했고, 1시간만에 그를 검거했다. 당시 A씨는 스스로 약물을 복용해 의식이 흐린 상태였으며, 병원 치료 후 긴급체포됐다.

광주에서 혼자 생활하며 아파트 건축 관련 업무대행사 일을 해왔던 A씨는 ‘협동조합형 민간임대주택’ 사업을 추진해온 것으로 알려졌다. 해당 사업은 동구 산수동에 343세대 규모의 전세형 민간 임대아파트 건설을 목표로 지난 2023년부터 입주자를 모집해왔다. 그러나 사업은 지지부진했고, 조합 설립 전단계인 창립준비위원회 명의로 1인당 1000만원의 가계약금이나 3000만원의 계약금을 받은 뒤 반환하지 않아 금전적 피해가 발생했다는 고소가 60여명으로부터 이어졌다. 이에 동부경찰은 사기 혐의로 A씨를 입건하고 수사를 진행하고 있었다.

A씨는 조사에서 “사업 실패에 따른 과

다 채무와 관련 민·형사 소송이 이어지는 상황을 비판해 범행했다”는 취지로 진술한 것으로 전해졌다.

또한 A씨가 자신의 사기 혐의 수사를 맡고 있던 동부경찰 소속 경찰관을 상대로 업무 방해와 피의사실공표 혐의로 고소한 사실도 밝혀졌다. 광주 남부경찰은 ‘수사관 교체 요구’ 등의 내용이 담긴 A씨 측의 고소장을 접수받아 수사 중이다.

경찰은 지난달 24일 사업자에 대한 압수수색을 진행했으며, 이 과정에서 계약자들에게 “허위 광고로 피해 입은 분들의 협조가 필요하다”는 내용의 문자 메시지를 발송했다. A씨 측은 이를 문제삼으며 경찰이 무죄 추정 원칙을 어기고 수사를 확대했다고 주장하고 있다.

용인서부경찰은 신병을 인계받은 A씨를 상대로 정확한 범행 동기 등을 조사하고 있으며, 이날 중 A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할 계획이다.

윤준명 기자

광주 아파트 ‘화물차 주차 금지 계속 불일 것’ 논란

“같은일 발생하도록 하겠다”

본보가 지난 10일 6면에 게재한 ‘광주 아파트 ‘화물차 주차 금지’ 손편지 논란’의 당사자가 사과문을 올렸으나 앞으로 그러한 행위를 계속 하겠다는 문장을 첨가해 네티즌들의 공분을 사고 있다. 일부에서는 ‘오타일수도 있다’는 의견도 있었으나 전반적으로는 ‘의도적으로 한 것’이라는 의견이 지배적이다.

16일 온라인 커뮤니티인 보배드림에서는 ‘광주 북구 아파트 화물차 쫓지 사과문’이라는 제목의 글이 올라왔다. 이 게시글은 지난 8일 ‘물상식한 광주 북구 어느 아파트’라는 제목의 글이 게시된 이후를 다뤘다.

당시 해당 글에서 글쓴이는 “아파트에 주차된 탑차의 앞 유리에 손으로 쓴 쪽지가 붙어 있다”며 사진을 공개했다. 공개된 사진에는 자필로 ‘탑차·화물차 차주님께, 아파트 입구 쪽은 우리 아파트의 얼굴입

니 나아가겠다”고 다짐했다.

학생 대표로 추모사 낭독에 나선 이세령 목포여자상업고등학교 학생회장은 “11년이 흘렀지만 그날의 아픔은 여전히 우리 곁에 살아있다. 세월호에 잠든 아이들은 이제 더 이상 희생자가 아닌 영원한 별이 됐고 하늘에 빛나는 바람이 돼 언제나 우리 곁에 머물 것이다”며 “그날의 아픔과 눈물, 분노와 다짐을 시간이 흘러도 가슴 깊이 새기며 살아가겠다. 잊지 않겠다”고 다짐했다.

한편 행사장 뒤편에는 나무 그림에 지장을 찍어 작품을 완성하는 ‘기억나무’ 부스도 마련됐다. 추모객들은 나뭇가지 끝마다 지장을 찍고, ‘선원으로서 책임감을 느낀다, 기억하겠다’, ‘안전사회’, ‘침묵하지 않는다’ 등의 문구를 적어 나무를 꾸몄다.

행사에 참여한 추모객 박우경(53)씨는 “다시는 우리에게 이런 참사가 발생하지 않길 바라는 의미에서 찾았다”며 ‘추모 장소마다 ‘기억하겠습니다’라는 문구가 있지만, 말뿐이 아닌 모두가 세월호 영령들을 잊지 않았으면 한다’고 말했다.

글·사진=정승우 기자 seungwoo.jeong@jnilbo.com

세월호와 트라우마

기고

김동수

대한적십자사
광주전남혈액원장



2014년 4월 16일, 오보와 함께 희망이 절망이 되었다. 생과 사의 갈림길에서 살아 나오기를 간절히 바랐지만 골든타임이 지날수록 불안과 초조가 엄습했다. 이제는 시신이라도 발견되기를 희망했다. 끝내 5명의 시신은 수습되지 못했다. 이렇게 세월호 참사는 우리 사회에 깊은 슬픔과 충격을 주었다.

얼마 전 목포해상케이블카를 가는 도중 먼발치에서 세월호의 잔해를 보았

다. 그 당시의 일들이 주마등처럼 지나갔다. 필자는 사고 다음 날 바다를 앞둔 팽목항으로 갔었다. 그곳에서 유가족과 실종자 가족들의 힘든 모습들을 볼 수 있었다. 비는 쏟아지는 가운데 구조작업은 더디고 생존확률은 점점 낮아지고 있었다. 브리핑 때마다 실종자 가족들은 오열했고 지치부진한 수색작업에 분통을 터뜨렸다.

적십자 봉사원들은 식사를 마련하고 가족들을 마주했다. 아무 말도 건넬 수 없었다.

그들을 말로 위로 하기가 쉽지 않았다. 당시 심리회복지원 활동가도 마찬가지였다. 믿고 싶지 않은 현실을 받아들이기에는 시간이 너무 짧았다. 며칠이 지나고 나서야 식사도 할 수 있었는데, 마침

완도 수산업체에서 기부한 전복으로 죽을 써드리는 가족들은 그나마 한술을 뜰 수 있었다.

그때까지 이와 같은 대형사고로 발생한 수백 명의 유가족과 실종자 가족을 돌본 경험이 없었기 때문에 우리나라 재난심리회복지원센터의 역할은 충분하지 못했다. 이후 행정자치부는 재난이 있는 곳에는 늘 적십자가 함께 한다는 사실에 대학, 병원, 단체에 산재했던 센터를 일원화하여 대한적십자사에 위탁했다. 이제는 최근 대형 산불, 제주항공 여객기 참사 등 각종 재난 현장에서 급식 및 물품 구호와 함께 심리회복지원 활동은 적십자의 필수불가결한 활동이 되었다.

아직도 그날을 기억하면 가슴이 먹먹해지고, 설명할 수 없는 무력감이 밀려온다. 무엇보다도 유가족과 생존자들은 단순한 ‘슬픔’을 넘어 공포, 분노, 불안,

수면장애, 우울증 등 깊은 트라우마를 겪었고 아직도 여전하다.

이러한 재난 상황에서 가장 절실한 것은 단순한 생존을 넘어선 ‘심리적 회복’을 통한 일상의 복귀다. 그러나 이 트라우마는 시간이 지난다고 자연스럽게 사라지는 것이 아니다. 외상 후 스트레스 장애(PTSD)는 사고 직후뿐만 아니라 수년 후에도 다양한 증상으로 나타날 수 있기에 지속적인 상담과 지원이 필요하다. 이러한 심리회복지원은 단기간의 위로가 아니라, 장기적이고 체계적인 치유의 여정이어야 한다. 그러나 여전히 많은 이들이 ‘치료받아야 할 고통’으로부터 방치되고 있지 않나 싶다.

세월호 11주기를 보내면서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단지 과거를 추모하는 것이 아니라, 세월호 희생자뿐만 아니라 각종 재난 피해자에 대한 ‘심리회복’ 지원 활동이 보다 장기적이고 체계적으로

니다. 뒤편 주차장을 이용하거나 차량 소유자 회사 또는 공장, 물류창고에 놓고 오시면 감사하겠습니다’는 문구가 쓰여 있었다.

해당 글이 올라오고 본보 등 각종 미디어에서 취재가 이어지자 해당 아파트 관리사무소는 ‘아파트 모든 엘리베이터 안내판에 쪽지를 부착한 사람에게 사과의 글을 아파트 전체에 4월15일까지 부착하라’면서 ‘하지 않을시 법적인 조치를 트럭 소유자가 진행할 것’이라고 공지했다.

그후 올라 온 글이 바로 이번 사과문인 것이다. 아파트 공식 게시판에 붙어 있는 해당 사과문에서는 ‘탑차 및 트럭에 안내 메모지를 붙여 차량 소유자에게 불편함을 주게되어 미안하게 생각합니다’라며 정중하게 시작했으나, 뒤이어 ‘앞으로 같은 일이 발생하도록 하겠습니다’라고 적어 사과문이라는 것이 무색하게 만들었다.

해당 글이 공개 되자 네티즌들은 ‘아파트 얼굴, 스스로 망치고 있다’ 등 분노 섞인 댓글을 달고 있다.

정유철 기자

이루어질 수 있도록 우리 사회가 협력하고 지원해야 할 필요성이 더 커질 것으로 보인다.

한편으로 우리 국민의 트라우마다. 세월호 11주기 인식조사에 의하면 국민 10명 중 4명이 ‘대형 재난으로 안전하지 않다’라고 답했다. 이러한 인식은 이태원 참사, 제주항공 여객기 사고, 산불 등 연이은 대형 재난으로 더욱 가중된 것이 아닌가 싶다.

“짱” 소리만 나도 깜짝 놀라며 위를 올려다본다. 광주 화정동 아파트 붕괴 이후 많은 시민이 길을 걷다가 건물이나 아파트가 무너진 것은 아닌가 하는 불안감에서 나온 행동이다.

이러한 트라우마를 조금이라도 벗어나는 방법은 불안감이 들 때마다 마음을 단단히 할 수 있도록 서로 ‘괜찮아’하며 지지하고 격려하는 것이 아닐까 싶다.